

“추석연휴 확산세 최대 고비”

7일 오후 5시까지 7명 코로나 추가 확진 판정 도민 백신접종 속도... 1차 접종 40만명 육박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대규모 확산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도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앞으로 보름간이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5시까지 7명(2663~2669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66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들어선 57명이 확진됐다. 또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8.14명을 나타내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제주에선 지난 3일 8명, 4일 7명,

5일 9명, 6일 5명, 7일 오후 5시까지 7명 등 닷새 연속 확진자 한 자릿 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명 중 1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3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해외입국자, 2명은 코로나19 유증상자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자가 격리 도중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요양병원 등 보호시설의 경우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연휴 기간 양자공원 등 장사시설에선 봉안시설 내 제례실·휴게실이 폐쇄되

며 음식물 섭취 및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쯤 추석 연휴 기간 추가적인 방역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 “추석연휴 전국적 이동량 증가와 가족·지인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부득이 추석연휴가 끝나는 2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0시 기준 도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39만6204명으로 40만명에 육박했다. 접종 완료자는 23만4547명이다. 제주도 전체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58.7%, 완료율은 34.8%다. 접종 목표인 접종 대상 인구수(57만 5116명) 70%(40만 2580명)와 비교하면 1차 접종률은 98.4%, 완료율은 58.3%다.

강다해기자



가을바다 정취에 푹 빠진 관광객들 본격적인 가을을 알리는 백로(白露)인 8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4일부터 병원 시작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0세 이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단위 접종 사업인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오는 14일부터 도내 병·의원에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보하고 동네 병·의원 529곳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2008년 1월 1일~2021년 8월 31일 출생), 임신부, 만 60세 이상이다. 생후 6개월~만 8세 어린이 중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자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제주도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확보하고 동네 병·의원 529곳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상군별·연령별 접종 날짜를 구분했다. 도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날짜와 의료기관을 분산해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65세 이상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만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10월 1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만 70~74세(1947년 1월 1일~1951년 12월 31일 출생)은 10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만 65~69세(1952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은 10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접종받는다.

65세 이상이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임신부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아직도 소화전 앞에 차 세우나요?”

위기 상황 이용되는 소화전 불법주차로 무용지물 우려 올해 7월까지 2195건 적발



제주시에 한 건물에 설치된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량. 강민성기자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비치된 소방시설 앞에 불법주차를 하는 비양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제주시에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 앞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목격됐다. 이도2동 한 건물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불법주차된 차량에 가려 찾을 수 없었다.

도남동의 상황도 비슷했다. 설치된 소화전 대부분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 둘러싸여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선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향하는 운전자의 모습도 포착됐다.

소화전 인근 연석엔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고,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이 아랑곳하지 않아 취지가 무색했다.

김모(29)씨는 “위기 상황 시 1분 1초가 소중한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

있다. 이 제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접수하면 단속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화전 불법주차 단속은 ▶2019년 169건 ▶2020년 3989건 ▶2021년 7월까지 2195건으로 집계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9년의 경우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소화전에 적색 표시 의무화가 시행돼 표시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며 “적색 표시가 된 소화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단속 건수가 낮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는 소화전 개수 증가와 과태료 금액이 높아졌고, 주민신고제 강화로 신고가 많이 이뤄져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잇따르는 불법주차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주차질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앞 불법 주차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성기자 kms651@ihalla.com

제주 2022학년도 수능 6994명 지원

지난해보다 440명 늘어 화법·작문·확률 통계 쏠림

오는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제주지역 지원자는 6994명으로 집계됐다.

문·이과 통합 체제에 맞춰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는 이번 수능에서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수학 영역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지원자가 절반을 넘으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부터 9월 3일까지 도교육청과 서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도내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재학생 5386명(77%), 졸업생 1414명(20.2%), 검정고시 합격자

194명(2.8%) 등 총 6994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접수 인원 6554명보다 440명 증가한 것으로 학력별로는 재학생 407명, 졸업생 11명,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 22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3 학생수가 6335명으로 지난해 고3 학생수 6072명보다 263명 늘어난데다, 고3 재학생 원서 접수 비율이 증가한 것이 원서접수 인원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다.

국어영역 선택과목은 지원자의 74%(5177명)가 ‘화법과 작문’을, 25.5%(1782명)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수학영역 선택 비율은 ‘확률과 통계’가 58.9%(4120명)로 가장 높았고, ‘미적분’(27.2%, 1904명), ‘기하’(8.3%, 580명) 순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특례기준 적용 우대)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가구당 금액 상한 없음)
- 신청방법 및 지급수단 : 카드사 신청(신용·체크카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신청 등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오프라인) 은행창구 방문
 - 지역사랑상품권(탐나는전) : (온라인) 도 홈페이지, 탐나는전 홈페이지·앱(모바일·카드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이 가능
- 신청 및 지급시기 : (신청기한) '21. 9. 6.(월) ~ 10. 29.(금), (지원금 지급) 신청한 다음날 충전하고 문자 통보
- 신청주체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지원금 사용 : 제주도내에서만 사용가능
- 지원금 사용 기한 : '21.12.31.(금)까지
- 이의신청 : '21.9.6.(월) ~ '21.11.12.(금)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요일제 시행 :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 이의신청(요일제는 시행 첫 주만 적용)
 -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신청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온라인 경우)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 (조회기간) '21. 9. 6.(월) ~ '21. 10. 29.(금)
- ※ 온라인 조회 첫 주는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제한)
-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조회방법) <온 라 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앱,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 등 <오프라인> 읍면·동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
- (서비스내용)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한·사용기한 등 조회